

石油의 世界史

— 魔法의 時代 —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아메리카大陸의 최초 정복자나 개척자들은 그들이 실수로 「인디안」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채취한 기름이나 핏치나 역청을 아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 모두 한결같이 놀랐음에 틀림없다. 만약 古代 작가들의 기록가운데 이미 그것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석유가 의약품이나 魔法에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南北아메리카大陸의 원주민들의 儀式과 행사는 대개 地中海연안의 고대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던 관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코론비아文明은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정복후 많은 종족은 모두 멸망해버렸다. 생존하고 있는 종족에 관해서는 거의 진지한 연구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최초의 정복자들이 기록한 설명과 일부 귀중한 民族學的 자료에 의하여 그들을 古代 슈메르에서 로마帝國에 이르는 시대와 비교할 수 있다.

석유의 魔法적인 성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黎明期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조로아스터系의 拜火教徒, 아폴로니아인¹⁾, 아메리카 인디안, 거기에 정도의 차는 있으나, 天然의 불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불에서 神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이 불타는 것이든지, 액체 또는

半流動體이든지 간에 古代의 석유는 不可思議한 점에서 아주 상반되는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즉 유익함과 동시에 악마적이며, 재난을 불러들임과 동시에 그것을 물리칠 수도 있다.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어떤 막연한 힘을 석유는 갖고 있으며, 원시적인 秘敎가 그것을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했다. 슈메르 사람들간에서 이미 역청이 아주 正反對의 역할을 하였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고 홀프는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惡靈을 물리치는데 사용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惡魔의 근원으로 간주되었다.

많은 魔法의 의식이나 처방전중에서 역청은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魔法을 걸려고 할 경우에 그의 형상을 역청으로 만들고 판에 박은 듯한 呪文을 외운 후에 그의 집근처에 묻었다. 사람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古文書에는 운명을 저주하는 방법으로서 필요한 法式을 행한 후에 역청으로 만든 작은 형상을 희생자의 문전에 묻는다고 설명되어 있다. 다른 책에는 역청으로 만들어진 작은 형상의 저주로 부터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희생자의 작은 형상을 불속에 집어 던짐으로써 그 운명을 저주하는 경우에 역청은 安성마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媚藥(催淫藥)으로 사용될 때 한층 詩的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註 1) 아폴로니아의 古代도시

주택에 惡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古代 셈族은 그들의 집문짝이나 문기둥에 護符(Talisman : 符籙)를 달아내는 풍습이 있었다. 역청은 護符의 위에 魔法의 기호를 적는데 사용되었다.

석유는 점을 치는데도 사용되었다. 예언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水槽 또는 水盤에 석유를 넣었다. 병이 났을 때에는 魔法使가 와서 환자가 치료될 것인지 혹은 사망할 것인가를 이 방법으로 예언했던 것이다.

바벨로니아에서는 石膏와 역청을 혼합한 것으로 환자가 있는 방의 문짝에 그림을 그렸으며, 그것은 신비적인 특성을 표현했던 것이다. 그와 함께 역청은 무서운 「라발트」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사용되었다. 「라발트」라는 것은 밤마다 어린이와 동물을 습격하는 吸血鬼이다. 사람들은 역청으로 만든 연고를 몸에 바름으로써 이 吸血鬼를 퇴치시켰다. 그 후에 사람들은 呪文을 외면서 역청으로 만든 작은 형상을 붙태웠다.

역청과 어린이의 피를 혼합한 액체속에 갑옷과 투구를 적시면 어떠한 무기도 그것을 꿰뚫을 수 없다고 오랫동안 믿어졌던 때도 있었다. 이것은 저 유명한 전설적인 女戰士 아마존이 사용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다.

아메리카 인디안의 어느 종족 사이에서는 땅속에서 채취한 그대로의 석유가 戰爭画나 魔法의 祭典画를 그리는 데 사용되었다. 캘리포니아의 요캇트族 사이에서는 석유가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어졌다. 「트리프니」라고 하는 魔法使들은 魔法의 무용-무용속에서 그들은 超自然的인 행위를 한다-을 하기 전에 얼굴에 석유를 발랐다고 F. 라터는 말하고 있다.

石器時代부터 살고 있었던 이들 인디안들은 그들의 화살에 黑曜石의 화살촉을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가지 돌로 만든 도구에 자루를 붙이기 위하여 역청을 사용했다. 그들은 바구니를 방수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여자들은 섬유로 만든 속치마를 농축된 蠟油로 「폴질」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석유는 魔法에 사용되는 것이 가장 많았다. 그것은 모든 超自然的인 표현에 이용되었다. 酋長이 죽으면 葬儀에 사용되는 그의 얼굴형

상은 역청으로 복사되었다.

홀반에 의하면 페니키아인들은 죽은 사람을 역청 또는 석유와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은 골골로 잔 거적으로 시체를 싸고, 그 거적위에 석유나 역청을 흠뻑 바른 다음 거기에 불을 붙였다고 한다.

中世 이후에도 소위 魔法과 醫術 사이에는 정확한 경계선을 긋기가 곤란하였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惡魔의 손을 빌리지 않은 魔法」인가 아니면 「惡魔의 손을 빌리는 魔法」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 兩者를 구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석유」를 나타내는 최초의 모든 호칭 가운데 하나가 라틴語의 「페트라 올레움」으로 되었으며, 醫術的인 魔法 혹은 魔法的인 醫術서적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루살렘의 族長은 알프렛드王²⁾(서기 899년에 죽었다)에게 靈驗이 많은 모든 처방을 써 보냈다.

“亡靈과 幻影 대해서는 香油를 몸에 바르고, 입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는 「페트라 올레움」을 바르고 혀밑에 十字표시를 새기며,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는 「페트라 올레움」을 바르고 十字표시를 신체의 각부에 새기며, 유약한 사람에게는 「치리아카」를 바르면 좋다”고 그는 확신을 갖고 적고 있다.

인디안들 石油의 길을 따라서 平和의 길을 만든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갖고 있는 「싸움의 길」과 「평화의 길」의 습관은 일부 석유에서 유래하고 있다. 사실 「평화의 길」은 보통 塩田, 水源地, 석유의 샘, 기타 주민들에게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든 資源을 따라서 연결되었다. 전쟁을 할 때에도 그것들은 모두 성스런 곳으로 되고 상대방으로부터는 중립지대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이 전투중에도 식량은 敵의 陣地에서마저 확보되었던 것이다. 아메리카大陸의 최초 프랑스인 개척자들은 곧 이 특수한 사정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평화의 길」에 의하여 인디안들의 화살을 피했으며, 또 아주 자연적으로 석유의 샘을 찾을 수 있었

註2) 앵그로 색슨王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다. 어느 프랑스인 선교사는 1627년 北아메리카의 현재 뉴욕州에서 「큐바의 샘」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석유의 샘을 발견하였으며, 이 샘 주변도 이와 같은 중립지대의 하나였다. 다른 평화의 길은 펜실바니아에 있는 오일 크리크의 석유가 천연적으로 용출하는 장소를 향하여 있었다. 이곳은 1858년에 최초로 대량의 석유를 발견한 지역이다. 이들과 아주 유사한 또 다른 길은 텍사스의 나코그드슈 油田지대 혹은 켄터키, 버지니아, 또는 오크라호마의 샘으로 통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인 개척자들은 인디안들이 석유로 그들의 手足을 문지르고, 상처나 피부병의 치료를 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모방함과 동시에 이 천연의 기름이 윤활제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의 四輪馬車의 車輪에 사용했다.

아메리카大陸의 신기한 모습에 경탄한 최초의 탐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들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석유를 사용하는 것을 본 주로 선교사들이다—은 그들이 면전에서 행하던 것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1767년에 알레가니산맥지대를 방문했던 어느 선교사는 인디안들이 채취하고 있는 석유의 샘을 발견했던 일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치통, 두통, 종기, 류마티즘, 捻挫(관절을 빼는 일)의 진정제 등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메로는 그것을 內服藥으로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갈색이며 램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잘 탄다』.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은 단지 인디안들을 그대로 모방할 뿐이었다. 벤자민 링컨將軍은 그의 편지가운데서 『알레가니江의 支流인 「오일 크리크」라고 부르는 작은 내(川)에 까지 갔으나 그 냇물 위에는 「바바도스의 타르」라고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기름이 떠 있었다. 이곳으로 진출했던 軍隊는 샘가에서 쉬면서 기름을 채취하여 그것을 그들의 관절에 발랐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병사들의 고통을 크게 완화시켰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던 류마티즘의 통증으로부터 즉시 해방되었다. 병사들은 「緩下劑」처럼 작용하는 이 물을 많이 마셨던 것이다.

齒痛에서 出血까지 석유가 모든 병을 치료하다

석유가 거의 모든 병에 잘 듣는다는 평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증거로 보아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검은 황금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직후에 석유를 병에 담아 Rock Oil 혹은 세네카 오일—세네카라고 부르는 것은 최초로 석유의 샘이 발견되었을 때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종족의 이름이다—의 상표를 붙여 약방에서 판매하였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석유를 약용으로 사용하였으며, 古代유럽, 그후 中世유럽에서도 이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슈메르인들 사이에서는 석유가 塗扶用, 燻蒸用, 피부병의 치료용으로서 사용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환자에게 먹이기도 했다. 어느 병에 걸리면, 환자를 역청으로 만든 침상위에서 꼼짝않고 자게 하면서 치료하였다. 역청으로 만든 부척(符籙)은 병을 퇴치시켰다. 아시리아인들은 종기나 기타 피부병의 外用藥으로 석유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아스팔트는 月經過多에 효능이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었다. 많은 古代민족사이에서 석유와 그 파생물은 出産을 돕고 月經을 빨리 오게 하거나 또는 중지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호평을 받았다. 프리니우스가 지은 책에는 당시 醫藥의 넓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석유는 止血, 消炎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상처의 치유를 촉진한다. 바빌로니아의 특산품은 白內障과 角膜白斑癩性的의 斑點, 苔癬, 痒疹에 매우 잘 듣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또한 痛風을 위한 塗抹劑로서도 이용되었다. 역청을 소다와 섞은 것은 齒痛을 낮게 한다.』

『포도주에 용해시켜 마시면 만성 기침을 완화시켜 호흡을 편하게 한다. 赤痢(이질의 일종)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이와 동일하게 처방한 것을 먹이면 설사를 멈추게 한다. 역청과 술로 만든 물약은 응고된 혈액을 녹여 腰痛과 류마티즘의 통증을 완화시킨다. 보리가루에 의한 癩法(염법: 患部를 덥게 찜질하거나 차게하여 열을 식히는 치료법)은 특효가 있기 때문에 역청과 섞어서 사용한다. 그것

은 出血을 멎게 하고, 상처의 유착을 촉진하고, 근육의 상처를 회복시킨다.』

『역청, 포도주 및 海狸香이 혼합된 약의 발산물(發散物)은 子宮의 充血을 제거하며, 역청의 燻蒸은 脫肛을 방지한다. 포도주에 넣어 마시면 月經을 빠르게 한다.』

司敎의 秘藥은 석유

中世 유럽의 의사들은 古代의 많은 작가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이들 처방외에 상당히 많은 처방을 다시 발견하였다. 유럽의 여러 지역, 즉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혹은 獨逸에서 발견된 천연의 석유와 그후 최초의 모험가들에 의해 말레이지아 또는 南아메리카에서 수입된 천연의 석유는 中世와 르네상스의 藥學書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10세기 이후 아라비아의 의사들은 유럽에 불가사의 한 「만미이」를 가져갔다. 이 미이라의 혼합물은 모든 의사의 처방과 魔術속으로 침투하였다.

中世의 「만미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페니실린, 일반 항생물질, 코티존(Cortisone), 아스피린, 설파마이드(Sulfamide) 등에 필적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던 것은 그렇지 않은 않았다. 이 「만미이」의 성공에 따라 경쟁상품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럽에 산재하고 있는 일부 석유의 샘에서 산출된 석유였다. 켈셀브론의 역청질 암석을 증류하여 검은기가 있는 기름을 제조하는데 성공한 16세기의 醫師 자콥 니드안멜은 그 제품에 「진짜 天然의 만미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그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의 샘들은 정도의 차는 있으나, 모두 유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작가나 醫師는 古代人들을 경탄시켰던 「유다야의 역청」과 그것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 무렵 북코네³⁾가 말하는 오베르뉴의 페쥬우물은 약취를 내는 역청을 산출하고 있어 상인들은 그것을 전조시켜 유다야의 역청으로 팔았다. 프랑

스 南部 베지에⁴⁾ 근처의 가비안에는 석유의 샘이 있는데 『그것은 17세기부터 알려져 왔으며, 그 좋은 석유는 샘의 소유자인 베지에司敎의 인장을 찍은 작은 병(小瓶)에 넣어 판매되었다.』이 놀라운 기름은 모든 성질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침투성으로 芳香을 갖고 있어 식욕을 증진시키고, 利尿·發汗, 驅蟲·鎮痛·通經劑로서 또는 경련과 히스테리치료제로서도 효능이 있다. 그것은 피부에 바르는 약으로 사용하면, 老化·虛弱·麻痺·中風의 局部를 회복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 당시 바바리아의 세인트 크리나스油, 티롤에 있는 시펠트의 「틸슈스의 血」, 이탈리아의 모디나에 나오는 산타 카테리아油, 알사스의 켈셀브론油가 유명하였다. 이들 기름은 모두 소유자의 말을 빌리면 최고로 놀랄만한 치료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세인트 크리나스油는 호수의 右岸에 있는 테게룬 시샘에서 채취된 것이다. 이 샘은 서기 450년에 근처 修道院의 修道士들에 의해 발견되었던 것 같다. 이들 베네딕트修道士들은 이 샘이 修道院의 관할을 받지 않게 된 1803년까지 수세기동안 이 기적의 기름을 채취하여 그것을 藥用物質로 팔았다. 테게룬시의 세인트 크리나스油의 특성과 효능을 선전하는 장문의 설명서에는 당시 알려져 있던 모든 질병은 물론 정신의 피로에서 오는 병에 대해서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추천하고 있다. 거기에서 보면 이 기름은 「그것을 손에 바르기만 해도」 毒蛇나 모든 종류의 毒을 갖고 있는 동물을 아무런 위험없이 포획할 수 있다. 티론의 「틸슈스의 血」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다. 6세기경 평상시에는 온순하나 무엇이나 내기를 하는 버릇이 있는 두명의 巨人이 그들중에 누가 계곡을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 나무줄기로 무장한 巨人하이몬은 상대인 티슈스에게 치명의 중상을 입혔다. 티슈스는 산속에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쳤다. 티슈스는 바위를 적신 이 후회없는 피가 적어도 사람들이나 동물에게 도움을 주도록 빌었다. 승리를 거둔 하이몬은 이를 후회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註 3) 1633년 사우디에서 태어났다. 博物學者. 후에 시트寺院의 修道士가 되어 실퀴우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註 4) 에로트의 주요도시. 몽페리에의 南西 약 70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그곳에서 隱者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식사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짙은 갈색의 액체가 바위에서 흘러내려 그것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나 동물에게 무한한 치료력을 갖고 있는 이 「틸슈스의 피」를 채취하였기 때문에 그 평판은 곧 인근에 널리 퍼졌다. 더우기 사람들은 역청질의 頁岩을 증류하여 그것으로 부터 이 귀중한 기름을 유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유명하게 된 것은 이 기름이 많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스프와 함께 마시면 그것은 페스트(흑사병)나 그외에 여러가지 전염병을 예방하였다. 그것을 몸에 바르기만 해도 이(風)나 기타 해충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毒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앙쥐나 족제비의 피해를 방지하였다. 가축에 물렸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水腫이 생겼을 경우에는 「틸슈스의 피」를 필요에 따라 약간 데워 상처에 발라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 무렵 란펠스루슈와 로프산에서 나오는 알자스의 기름은 매우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 이 「土地의香油」는 폐와 간장에 관련된 병에 특효가 있었으며, 또한 피부병·절상(切傷)·타박상 등에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바르는 약이나 藥法에도 사용되었다.

中世에 기적같은 효능을 갖고 있었던 이들 기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15세기초부터 알려져 있었던 산타 카테리나油였던 것 같다. 그것은 모데나 地方에 있는 韃靼公爵의 領地 몬테 티비오의 여러 곳에서 삼출하고 있는 것을 채취하여 만들었다. 그것은 옴은 물론 癌, 花柳病, 瘰癧, 간질, 산통(疝痛) 등을 치료했다.

산타 카테리나油 16세기의 유럽을 풍미하다.

산타 카테리나油는 처음에는 「오리오디 샷소」(둘의 기름)나 「몬테시블油」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나, 中世 이후 「페트로 레온」으로 부르게 된 최초의 것이다. 이 새로운 호칭은 제네바의 古文書 가운데서 발견된 1480년의 日附가 적힌 어느 기록에 나

와 있으며, 거기에는 또한 이 기름의 놀라운 효능이 잘 설명되어 있다.

이 기름은 천식에 잘 듣고 또한 『요통이나 모든 관절통에 가장 효과적이다... 동시에 귀가 어두운 사람이나 角膜白斑에도 효력이 있다. 그것은 疝痛이나 腸捻轉과 같은 腸部의 심한 통증을 완화시킨다... 그것은 子宮의 냉을 제거함으로써 임신을 용이하게 한다. 그것은 麻痺·斜視 혹은 기억력이 나쁜 사람, 그밖에 모든 毒을 갖고 있는 동물의 咬傷에 잘 듣는다.』

산타 카테리나油는 효능이 좋아 상당히 유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적의 기름의 가치를 찬양하는 第2의 効能書-독일어로 쓰여져 1500년에 뉘른베르크에서 출판되었다-가 만들어졌다. 이 効能書는 그것이 출판된 뉘른베르크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第1 効能書와 마찬가지로 名醫 아부켄나⁵⁾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으며, 모든 병에 대하여 석유의 사용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第3의 効能書는 第1의 効能書와 같이 프랑스어로 쓰여졌으며 1540년경 안베르에서 발행되었다. 이 국제적인 廣告는 이 석유가 많은 판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만약 산타 카테리나油가 기대했던 여러가지 좋은 치료효과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거의 소유됨에 걸쳐 그렇게 호평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古代의 석유문학가운데서 가장 흥미있는 작품인 안베르의 効能書는 제네바와 뉘른베르크의 効能書가 이미 나와 있었으나, 더 새로운 치료효과를 추가시키고 있다. 『그 高貴油의 효능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 이 기름은 모든 瘡瘍(潰瘍)을 없애고 모든 오래된 상처(古傷)을 치유시킨다...그것은 귀가 어두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끓는 물이나 핏치로 화상을 입은 사람, 또는 동상을 입은 사람은 하루에 2회 이 기름을 바른다...또한 임신하고도 출산할 수 없는 부인은 이 기름을 입구와 배꼽에 세방울씩 떨어뜨리고 같은 기름으로 복부를 고르게 마찰하면 출산이 가능하다...또한 狂犬에 물렸든지 독사나 기타 독을 갖고 있는 동물에 물려 刺傷을 입은 사람이나 가축은 이 기름을 刺傷이나 咬傷에 잘 바르면 확실하게 치료된다...瀝尿症이나 炎症性 종양

註5) 안부켄나 이른 시나의 라틴名, 페르샤 출생의 철학자·의사 유명한 「醫學正典」의 저자

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局所주위 전체와 배꼽에 이 기름을 바르고 문지르면 치료된다. ...또한 자궁에 압박을 느끼는 부인은 縮(縮)으로 작은 구슬을 만들고 거기에 석유를 침투시킨다. 그리고 그 구슬을 下腹部에 삽입한다. 그러면 즉시 자궁은 석유의 향기를 받게 되고 그 부인은 기분이 상쾌해진다...』

마지막으로 이 廣告集의 작자는 『이 석유는 이러한 모든 효능과 이밖에도 여기에 열거하지 못한 여러가지 효능을 갖고 있다』고 자신있게 설명하고 있다.

매우 소박한 이들 문장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中世末의 유럽人들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迷信의 영향을 받아 아메리카 인디안들과 마찬가지로 석유의 많은 치료효과 가운데 일부를 믿고 있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슈메르人이나 바빌로니아人, 古代의 모든 다른 민족들이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秘油가 갖고 있는 마술적·의약적인 성질에의 신앙은 세계적인 것이었으며, 新大陸 정복자들의 최초 공적의 하나는 그들의 君主와 유럽의 宮廷에 새로운 불가사의한 產物을 보내는 것이었다. 수마트라에서 발견된 인도네시아의 「미냐 타나」를 1632년 이후 네덜란드人이 유럽에 수입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 의한 것이다. 짧은 기간동안에 의약용으로서의 성질을 평가받은 이 異國의 산물은 산타 카테리나油의 경쟁상품이 되었으며 「아딩油」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에서도 판매되었다. 말레이 半島의 원주민들이 질병치료를 위하여 언제부터 석유를 사용했는지를 안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름은 매우 귀중하였기 때문에 수마트라島에서 가장 강력한 君主인 아딩王은 그 수출을 금지하고 이 금지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극형에 처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기름이 유럽, 中近東 및

아메리카 인디안의 기름과 같은 효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네덜란드의 의사들은 이 기름의 평판을 전파시키는데 공헌했다.

西紀 668년 日本의 朝廷에 석유를 헌상한 기록이 있다. 그것은 사할린에서 온 여행자가 아이누族들이 의약용으로 사용하던 天然油의 견본을 天智天皇에게 헌상하였다는 것이다. 소련領이 된 사할린에서는 석유개발이 20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베네수엘라에서 스페인으로 출발했던 모든 선박들은 16세기초부터 여러개의 콘술단지에 석유를 넣어가지고 왔으며, 女王과 宮廷은 그 품질을 높게 평가하였다. 「베네수엘라의 歷史的 起源」 중에는 1539년 4월 30일 財務官인 프란시스코 데 카스테라노가 누에바 카디스로부터 女王앞으로 보냈던 편지가 인용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모든 선박을 이용하여 석유라고 하는 기름을 발송하라는 명령에 따라 안토니오 데 혼세카船長의 선박편으로 물과 같이 정제된 좋은 석유를 한 단지 보내올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기름은 이 섬의 東部해안에서 채취한 것으로 선박의 修繕用 및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근대의 석유정제업자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약품의 원료로서 석유로부터 약 100여종류의 물질을 추출하였다고 해도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석유의 마법적인 성질이 일련의 새로운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그것이 갖고 있는 可燃性·爆發性의 성질이었다. 옛날 「그리스의 불」이라고 일컬어졌으며 火箭(火失)에서 타올라 거의 꺼지지 않던 불꽃으로 인한 공포는 석유의 기원에 놀라운 신비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

(계속)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크고 나라큰다